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

박 미 혜** · 권 순 우***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urrent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Park, Mi-Hye** · Kwon, Soon-woo***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improvement tasks through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for the desirable inclusive education of students with the hearing impairment. **[Method]** For this study, ten classroom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ing experienced teaching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general elementary school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by using the method of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t's to explore the meaning and nature of human experiences, the deep meanings contained within various phenomena.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that was categorized into a four-step process that participants had positive perception and necessity of the full inclusive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but they experienced the limitation of teaching skills, so they felt to need the professional training. And also as the main teacher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they had tried many things for them but they recognized the limitation of supports for them. Through this process, it showed that participants hoped to be changed to be a better teacher for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Second, the improvement tasks of full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were categorized into a four-step process.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m was to improve communication ability, and to make communication place for improving social skills of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Conclusion]** suggesting that there's a need for the change of the teachers' training system, supports of acceptance and standing alone for the hearing impaired children, national supports for qualified and stable special education, expanded professional personnel employment.

Key Words : Hearing Impairment, Inclusio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9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
Ph D,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부교수(ksw1114@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1971년 대구 칠성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시작으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다(문은희, 2009).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통합교육이라 함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동일 공간의 교실환경에서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보장받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의 의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존중받는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일반학교(급)에서 수업참여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 것이다.

2020학년도 특수교육 통계 현황을 알아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총 95,420명이고, 이중 26,299명이 특수학교에 있다. 52,744명이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으며, 일반학급인 전일제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수는 16,06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316명의 장애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에서 청각장애학생만을 알아보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은 647명,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은 710명, 전일제 통합학급인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은 1,760명, 그 이외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15명, 총 3,1325 명으로(교육부, 2020) 통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일제 통합학급인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매우 많다. 즉,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반면(정은영, 2012), 일반학급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 수는 통합교육의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교육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필요성(서중현, 유은정, 2014)이 일반교사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을 선호하고 일반학급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인공와우수술과 보청기 기술, 그리고 신생아 청력검사 발달 등으로 인한 청각장애학생들의 청력 손실 정도가 개선되고 있고, 청각장애학생의 조기 장애발견이 빨라지고 있으며(Bemdsen & Luckner, 2010), 적절한 재활 처치나 빠른 중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의 중요성 및 당위성은 크며(Cramer et al., 2010), 통합교육의 질적인 변화와 개선, 실천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김하얀, 2020).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이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학생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되며(권순황, 2010; Kayi, S' lungile, & Bonginkhosi, 2019), 통합교육이라는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현재의 통합교육 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이 생활하고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들의 요구와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절한 통합교육인지를 점검해야 한다(Powers, 2002).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일반학급에서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청인학생과 더불어 청각장애학생이 학교라는 사회 첫걸음에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의무는 크다. 일반 초등학교 교사는 통합교육의 목적을 인식하고, 청각장애학생들이 청인학생들과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도록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전웅섭, 정은희, 2015)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통합교육 현장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은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재는 양질의 통합교육을 구축하는데 제한을 가져오며(박찬원, 2004; Mock & Kauffman, 2002), 결국 청각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문은희, 2009; Most, Ingber, & Heled-Ariam, 2011)과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지금보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지원의 확대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이현주, 2018).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각장애학생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일반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교육에 있어서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거나(권순우, 2010; 권순황, 2010) 특수교사 또는 학부모와 관련된 연구(김선애, 최성규, 2009)로 청각장애학생이나 특수교사, 학부모와 관련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대안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연구 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인 연구(서중현, 유은정, 2014; 전웅섭, 정은희, 2015)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로서 통합학급 교사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는 연구(이현주, 2018),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인이 경험한 장애의 의미에 대한 연구(김하얀, 2020) 등이 있으나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통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통합교육 개선 과제를 찾고자 하는 심도 있는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실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통합교육은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교우 관계, 그리고 사회·정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청각장애학생을 직접 담당한 일반 초등학교 교사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 통합교육 현장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따른 개선 과제를 찾고자 하는 연구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개선 과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통한 개선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청각장애학생을 통합교육 환경에서 지도 및 경험이 있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솔직하고 깊은 묘사 방법을 통한 통합교육에서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고, 개선 과제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일반 초등학교 교사와 개별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고,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S시와 U시에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거나 담당할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하여 면담에 적극적인 참여의 뜻을 보이는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는 S시에 위치하고, 가)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교사 3명과 나)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교사 2명, U시의 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교사 3명, 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교사 2명으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면서 겪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개선 과제를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일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Age	Career (years)	Degree	Special teacher certificate	Training experiences related hearing impairment	Hearing impaired students taught		
							Grade/ Gender	Degree of disability	Characteristics
A	Male	48	17	Master degree	Yes	No	6 grade /Male	Level 2	Wearing acochlear implant
B	Female	37	12	Master degree	Yes	No	3 grade /Male	Level 2	Wearing cochlear implant
C	Female	39	13	Master degree	Yes	No	2 grade /Male	Level 3	Wearing hearing aid
D	Female	37	11	Bachelor's degree	No	No	5 grade /Female	Level 3	Wearing hearing aid
E	Female	43	17	Master degree	Yes	Yes	5 grade /Male	Level 2	Wearing hearing aid
F	Male	42	16	Master degree	No	No	6 grade /Male	Level 2	Wearing hearing aid
G	Female	35	8	Bachelor's degree	No	No	4 grade /Male	Level 3	Wearing hearing aid
H	Female	44	15	Bachelor's degree	No	No	4 grade /Male	Level 2	Wearing cochlear implant
I	Female	43	12	Master degree	No	No	6 grade /Female	Level 3	Wearing hearing aid
J	Female	46	18	Master degree	Yes	No	5 grade /Male	Level 3	Wearing hearing aid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면담을 실시한 순서대로 가명을 사용하여 제시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목표 표집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각 연구참여자마다 3회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들과 사전에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별 면담을 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에 사용된 질문지는 권순우(2010)의 연구, 김선애, 최성규(2009)의 연구, 문은희(2009)의 연구 등을 참고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한 후 연구참여자들에게 1차적으로 질문지 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박사 이상의 특수교육 전문가와 함께 질문지를 재수정 및 보완한 절차를 가진 후 완성된 질문지를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심층 면담에 사용하였다. 면담 이후에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1) 자료 수집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거나 담당할 경험이 있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하였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개방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용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연구참여자가 개개인이 자신이 느끼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질문지를 작성한 다음에는 본 연구의 참여 의사를 보인 연구참여자들에게 1차적으로 질문지 내용을 전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비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소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질문에 대해서는 질적인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이상의 특수교육전문가 2인과 함께 질문지를 적절하게 보완하는 절차를 가진 후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기 위한 질문지는 <표 2>와 같다.

<Table 2>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Area and Content of Participants

Interview Area	Detailed Question Content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aught hearing impaired stud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thoughts about full inclusive educat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 Prio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 What's the most needed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the full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Improvement tasks of teaching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full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ment tasks of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s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of full inclusive education -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of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teachers' training and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of full inclusive education - Improvement tasks of the current teachers' training system in teaching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of full inclusive education - Improvement tasks for families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 Other opinions

작성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알려서 면담을 받기 전에 면담 질문지를 잘 읽어보고, 답할 내용을 생각해서 오도록 한 다음 심층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을 하기 전에는 이들에게 본 연구에 관한 자세한 목적과 관

런 설명을 사전에 진행하였고, 이에 최종 선정된 10명의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한 초등학교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은 2019년 4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10일 사이, 약 8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요구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오후 5시 전후로 지역의 조용한 카페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별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개인 사정이나 시간을 고려하여 개별 연구참여자 당 60분에서 70분씩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에게 실시한 개별적인 면담 횟수는 충분한 자료 확보를 고려하여 한 사례 당 총 3회기로 이루어졌다.

2)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한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연구자가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된 녹음기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한 녹음된 내용의 자료들은 최대한 면담을 실시한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면담 내용의 왜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노트를 사용하여 면담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장면을 자세히 요약 및 정리하여 면담을 실시한 이후 3일 이내에 미흡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실시한 면담 내용을 전사 시에는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수집된 개별 면담 녹음 내용, 면담 상황이나 내용을 정리한 현장 노트 등을 기본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고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을 통해 확보된 심층 면담의 결과는 A4용지로 138쪽의 전사본이 나왔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연구전문가와 연구자가 함께 반복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연구참여자에게 재확인하여 이를 다시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를 획득하는데(김영천, 정상원, 2015)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의 주관성이나 편향된 해석 및 편견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자료 분석 단계마다 보완을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여 단계마다 자료 의미 분석 및 해석이 연구참여자가 의도 및 의미가 맞는 것인지 재확인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침으로써, 연구 결과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 대한 자료 처리 방법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참고하여(김정민, 임해주, 김경희, 2014)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양의 충분한 자료

를 수집한 이후에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서 주제별로 전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유목화시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를 분석할 때는 개방적 코딩으로 실시한 이후, 코딩된 자료는 상위 및 하위범주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범주를 다시 원자료와 비교해 가면서 범주를 재확인 및 수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한 내용, 현장노트 등을 참고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와 비교하고 범주화하였는데 코드 간의 지속적인 비교와 분석을 거쳐 다시 확장된 범주로 분류하여 의미를 도출하고 다시 상위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중간 중간의 의미있는 코드는 확인하여 재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의 윤리성은 중요한 요소로써 연구참여자와의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할 때 연구참여자들이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나 생각, 기억 및 감정 등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표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참여자들 모두에게 연구자 소개와 함께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절차, 연구 참여 시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 존중 및 연구참여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장, 연구참여 시에 따른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참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참여 동의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5.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는 적절한 검증,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되도록 면담시간을 크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즉,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연구참여자가 본인이 재검토하도록 하여 왜곡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가지는 시각을 다시 확인하고, 현상에 대한 바른 해석을 도와 심층 면담에서 연구참여자의 생각이나 의미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사과정 이상의 특수교육전문가 2인의 의견을 통한 좀 더 사실적인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 연구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실제적이고 사실에 바탕을 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김정민, 임해주, 김경희, 2014).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바람직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경험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현 통합교육의 개선 과제를 알아보는 연구로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경험의 본질을 탐구 및 분석하였다.

1.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에서는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청각장애학생 지도의 한계, 전문적인 연수의 필요성, 담임교사로서의 노력,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의 한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표 3>과 같다.

<Table 3>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Semantic structure	Categories	Subcategories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Necessity of full inclusive education and limitation of teaching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the full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Importance and necessity of full inclusive education, Limitation of practical teaching, Lack of reference materials, Heavy work burden, Lack of specialists, Prejudice of the disability, Lack of educational methods and evaluation standards, Lack of expertise
	The need of professional training	Need of related training, Willingness for professional training, Later training, Need of full inclusive education training, Decreased confidence in teaching, Lack of general related information or knowledge
	Efforts as a teacher of full inclusive education	Motivation, Communication improvement efforts, Sociality improvement efforts, Classroom environment problems' improvement, Disability understanding education importance, Mutual consideration, companionship guidance, Encouragement, Comfort, Empathy, Parental counseling, Reading and group activities, Mind understanding
	Limitation of support for educat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Lack of competent teachers, Need of support for special education specialists, Stable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 in schools, Poor classroom environment, Indifference, Lack of national guidelines, Demands of more efforts of all related persons

1)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 지도의 한계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

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의 어려움과 한계를 토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한계를 넘을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청각장애학생을 실제 지도해보니까 통합교육은 청각장애학생에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각장애학생도 일반학급에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친구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어 답임으로서 지도가 쉽지 않긴 해요. 그래도 청각장애학생 본인이 일반학급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고, 부모 또한 그것을 원하고 있는 쪽이라서 통합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임교사에게만 돌리지 않는다면 통합교육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각장애학생 본인도 특수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쪽이죠(연구참여자 A).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느낀 건 통합교육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일반학급에서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긴 하지만 교실 분위기를 잘 만들면 서로 도와주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반학생들도 청각장애학생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게 되고, 교사도 그 학생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고 배울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청각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는 것은 아직은 교사 혼자 담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F).

요즘은 다양한 수준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오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함께 교육을 하다보면 문제가 없진 않지만 부정적인 부분보다 바람직한 부분이 크다고 봐요. 앞으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이 더 강화될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청각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즉, 통합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 같이 전문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야 청각장애학생도 자신에게 더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연구참여자 G).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만 학교 관리자들부터 청각장애학생이나 장애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 지원 및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장애학생에게 관심이 크게 없는 편이고, 그래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이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또한 지금 교실 상황을 보면, 일반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치는데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많이 없어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많고요. 청각장애학생 부모도 처음엔 학교에 대한 기대, 자신의 자녀가 통합교육을 받는다는 기대나 희망이 크다가도 학교가 그것을 못 채워주니까 점차 통합교육에 대한 실망이 커지게 되고 그냥 담임교사에게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편이에요(연구참여자 J).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 지도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바람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합교육 환경으로 연구참여자 A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수업받고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하고 잘 지내는 편이라고 하였다. 교사로서 연구참여자 A는 통합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

을 나타내준다. 하지만 통합교육이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충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학교가 수업내용이나 지도 방법 등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급 환경이 지속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과 그 뜻을 함께 한다(권순황, 2010; 박성하, 2009). 연구참여자 J는 통합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아직은 학교도 그렇고 일반교사, 학교관리자들도 준비가 안 된 부분이 크다고 보았다. 학교가 우선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청각장애학생 지도나 평가에서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성패가 교사만의 책임이 아닌 학교관리자나 책임자가 해결해야 할 주체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일반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음을 반복해서 시사하며(이수연, 김은경, 2008), 통합교육 현장의 사정을 적극 반영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있어서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연구참여자 F는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도와주고 배려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써 함께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지금은 일반학급에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고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주체로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실망감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할 출구를 찾고 있었고,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원임을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관리자나 정부도 현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통합교육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깨닫고(박성하, 2009), 담당교사와 청각장애학생에게 지금보다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과 그 내용을 같이 한다(박찬영, 2012).

2) 전문적인 연수의 필요성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들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는데 있어서 자산의 전문성 부족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련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그런 연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 올바른 지도를 위해 꼭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구화나 수어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어요. 청각장애학생을 직접 교육을 했어도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실제 지도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잠깐 배우기는 했지만 청각장애 과목을 따로 듣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조금 아는 수준이죠(연구참여자 C).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해보니 당황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냈을텐데 말이죠. 저는 그 때 장애학생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을 갑자기 맡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관련 연수는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리 관련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 청각장애학생에게 더 잘 지도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예 교대, 사범대부터 장애아동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최소 학생을 맡기 전 방학 때나 2월 경에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연수 기회와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연구참여자 D).

예전에는 통합학급 연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학급 연수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실제 현장의 대부분의 교사들도 그래서 그런지 통합교육에 대해 관심이 큰 것 같지 않고, 장애학생 맡는 것을 피하거나 그게 일반교육에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특수교사가 배워야 하고 특수교사 할 일이라고 여기죠. 즉, 일반교사들 생각에는 장애학생은 특수교사가 전담으로 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연수도 그러한 영향으로 거의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보통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지 일반학교가 주체로 하는 통합교육 연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연수를 해야 하는데 특수학교 주체로 통합교육 연수를 만들고 있죠. 그것마저도 일반교사가 이를 신청하려고 해도 잘 없어요(연구참여자 E).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있어서 일반교사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연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고 청각장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서 사실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청각장애학생을 만나면 사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몰라서 임의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학생에 대한 지도나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도 많고 환경적인 지원 문제도 크고요(연구참여자 G).

사실 청각장애학생을 접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고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일반교사를 위한 연수나 교육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각장애학생을 맡기 전에 기본 지식이 있다면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좀 더 그쪽에 대해 자신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연구참여자 H).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어나 수어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으로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교사가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연수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가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적인 연수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일반학급 교사

를 위한 수어나 구어 등의 연수를 많이 개설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일반교사가 지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기르도록 수어나 구어 등 관련 적절한 연수와 교육을 현장에 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박성하, 2009; Lieberman et al., 2000).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교과교육에 필요한 연수로 연구참여자 D는 청각장애학생을 맡기 전 충분한 연수 기회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의 학교 행정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연수 기회와 준비 시간을 담당교사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를 의무화하여 일반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과 수준의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담임을 기피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학교에는 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수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연구참여자 G가 감당하는 데 한계로 느껴졌다.

이렇듯 청각장애학생 담당 교사가 여전히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청각장애학생의 다양한 특성 및 장애 정도,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김하얀, 2020; 박찬원, 2004).

셋째, 전반적인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수로서 연구참여자 E는 장애학생을 적절히 지도하기 위한 연수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받는 연수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참여자 E가 보는 통합교육 현실은 통합교육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연수의 이원화로 청각장애학생을 비롯한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이 말 그대로 교사들 교육부터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해야하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특수교사 고유의 업무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을 맡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연구참여자 H는 학교에 특수교사가 많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특수교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일반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그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생을 직접 담당하는 일반교사에 대한 적절한 전문적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과 그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김하얀, 2020),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적절한 전문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사전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권순우, 2010; 박찬영, 2012)과 동시에 청

각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3) 담임교사로서의 노력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일반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일반교사의 노력이 요구됨을 교사들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크다고 보긴 어렵죠. 하지만 일반학생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교사로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제가 맡은 청각장애학생은 친구들과 의사소통 및 교우관계 개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 상담을 했고 최대한 교사 간섭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과 교우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했어요. 내가 맡은 청각장애학생은 말을 길게 잘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인공와우수술을 해도 나이가 많을 때 해서 그런지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국어나 수학에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몇 번씩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연구참여자 A).

제가 맡은 청각장애학생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될 만큼 큰 문제가 없어서 따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친구들과 같은 자료와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했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사회성 증진을 위해 더 노력했어요. 특히 조모임, 모둠활동 때 아이들과 못 어울렸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하는 활동을 자주 갖고자 노력했고, 그 학생을 자주 격려해주고 다른 학생보다 좀 더 관심을 두고 지도했어요(연구참여자 D).

청각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는 것은 실제 쉽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의 역할만으로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의 지원이 일반학급에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교육이 통합을 강조하지만 통합교육 환경이 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크게 나아지고 있다고는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업무도 많다 보니 힘들었어요. 보통 일반교사들은 거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맡은 청각장애학생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준을 대략 맞춰서 필요한 학습지를 제공하거나 시각 자료를 따로 제공했어요(연구참여자 E).

청각장애학생을 실제 지도하면서 제 스스로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지도하면서 당황하기도 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챙겨야 했고 무엇보다도 그 학생 지도에 학교로부터 관련된 자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으니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맡은 청각장애학생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제일 크게 보였고 그 청각장애학생은 주로 교재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래와 함께 그 학생을 수업하게 해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을 도와주게 했어요. 다행히 같은 반 친구들이 그 학생과 짝이 되면 잘 도

와줘서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연구참여자 H).

우성(가명)이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조금 더 쉬운 수업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쉽고 최대한 천천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의 목표보다 낮게 잡아서 더 간단한 과제나 질문을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도 다른 학생들만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업 활동 자료를 제시할 때 우성(가명)이에겐 더 쉽고 편한 시각 자료를 제공해서 지도 했어요(연구참여자 J).

이상에서와 같이 담임교사로서의 노력은 의사소통지도, 모둠활동지도, 보충자료지도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지도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A는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구 관계 부분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에서 찾았고, 또한 청각장애학생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인위적인 친구 관계 형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연스럽게 친구와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인공와우수술과 같은 조기치료 및 교육적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청각장애학생의 발음 개선과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실천할 때는 지도하는 게 쉽지 않았음을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고 하였고, 이에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지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전에 현장의 일반교사와의 소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박성하, 2009; 박찬영, 2012).

둘째, 모둠활동지도로 연구참여자 D는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성과 언어 능력 증진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왔음을 탐색할 수 있었다. 청각장애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었지만 친밀한 친구관계에 요구되는 기본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각장애학생과 청인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조모임이나 모둠 활동을 계획하여 지도하는 것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었다.

셋째, 보충자료를 통한 지도로서 연구참여자 E는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깨달아 오면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들의 전문성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무엇을 청각장애학생에게 지도해 주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망설이는 과정에서 추가나 보충자료 제공에서 답을 찾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J는 청각장애학생이 청인학생들과 어울려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래 수준과 다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서 청각장애학생의 지도의 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준비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체계적으로 시기와 상황에 맞게 계획하여 일반학급에서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정미, 2018).

4)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의 한계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지금의 통합교육 환경은 교사가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며 구체적이고 적합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청각장애학생인 경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받게 아직은 크게 느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반학급에서 일을 해 오면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을 위해 국가로부터 특별한 예산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장애가 심한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온다면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연구참여자 B).

일단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하려면 듣기능력과 이해능력이 많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담임교사나 특수교육, 치료 쪽 전문가들을 위한 지원이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지도해 보면 듣기가 잘 안되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 학업성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교사도 힘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C).

제가 맡은 청각장애학생은 발음에 문제가 있었고, 학습능력이 다른 친구에 비해 많이 떨어져서 힘든 점이 많았어요. 특히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교에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가 상주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따로 외부로 나가서 치료센터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크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청각장애학생 부모님들 생각이 학교는 잠깐 있다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연구참여자 G).

지금 현실은 담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라서 사실 청각장애학생을 반기는 담임교사가 많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많이 지원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의 경우 그러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학교에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교실도 부족하고 치료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실도 마땅히 있지 않아요(연구참여자 J).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지원 부족에 따른 일반교사 책임의 증대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B는 지금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이고 필요한 지원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일반학급의 장애학생이나 교사를 위한 특별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온전히 일반교사가 안고 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J의 경우도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있어서 현재 교실 환경은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한 일반교사가 많은 부담을 느끼는 구조라고 강하게 언급하면서 국가의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이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전문 인력 배치와 교실마련의 필요성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특수교육 전문 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C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교에 전문적인 특수교사나 치료사들의 안정적인 배치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즉, 청각장애학생에게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은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인식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지원이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특히, 청각장애학생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이 학교에는 많은 데 여전히 특수학급이나 지원실도 없는 곳이 많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나타내었다.

셋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연구참여자 G는 청각장애교육에 있어서 청각장애학생의 발음 개선이나 학습지도 등 학교에서의 특수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교의 현실이 아직은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청각장애학생교육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대로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의 배치와 지원 및 처우개선이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참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데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문은희, 2009; 박찬영, 2012).

2.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개선 과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 지도 시 개선 과제는 그 의미구조로써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노력, 교사양성 체제 변화, 청각장애자녀 수용 및 홀로 서기 지원, 국가의 질적이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확보의 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각장애학생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통합교육 환경의 청각장애학생 지도 시 개선 과제는 <표 4>와 같다.

<Table 4> Improvement tasks of teaching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full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Semantic structure	Categories	Subcategories
Improvement tasks of teaching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full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Efforts of improving communication	Linguistic support for pronunciation improvement, Support for special education experts needed, The correction of teaching method,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in the classroom, Making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room, Support of related guidelines or materials, Support of appropriate communication diagnostic tools
	Change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Establishment of required special education subjects related to the field, Placement and guidance of special education experts, Special education majors, Special education service subjects, Practice subjects, National teacher employment test problems, Teacher internship system to demonstrate the competence, Unification of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courses
	Acceptance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and support of standing alone	Disability hiding, Sensitivity, Anxiety, Overprotection, Family support, Support of counseling experts, Disability acceptance, National support, Expansion of parental training, Stigma, Improvement of prejudice environment, Making meetings, Various information, Knowledge Sharing, Trust, Encouragement, Belief, Support
	National supports of the quality and stable special education and the employment of professional specialists	Independence, Support of communication skills improvement, Teacher expertise improvement, Special education specialist placement, Stable employ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Incentives offer to teachers, Reduction of work, Early special education, Reduction prejudice of the disability, Quality education training

1)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노력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청각장애학생이 청인학생들과 잘 지내고 학급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즉, 통합학급에서 청각장애학생이 잘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고 교감을 나누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호(가명)는 의사소통이 간단한 대화 정도만 되지 학습은 거의 잘 안 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더 지원 받아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특수교육 관련 지원이 보다 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만나본 특수교사나 치료사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교류도 잘 안되고 문제가 많아요. 이런 현실에서 사실상 통합교육이 일반교사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특수교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현호(가명)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많이 기르는 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특수교육서비스 지원도 학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보았으면 해요. 그래야 서로 협력도 되고 청각장애학생이 따로 외부로 나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치료사나 특수교사를 순회로 하기보다는 따로 교실을 만들어서 상주하여 청각장애학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사소통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C).

사실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면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잘 안 들리는지 감도 잘 안 오고 내 말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각장애학생의 언어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청각장애학생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그 때 그 때 표시를 청각장애학생이 하도록 해서 교사가 더 크게 또는 더 천천히 말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곤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줘서 의사표현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실 청각장애학생이 자신의 의사소통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편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배려해줘서 그 즉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마이크나 기타 필요한 것을 그 학생에 맞추어 사용 한다던가 그 학생이 교실에서 의사소통이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청기가 더 좋은 걸로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청인학생들과 의사소통이 더 원활히 되고 교사들도 수업이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E).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청각장애학생이 말하거나 질문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추측하고 지도 및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해요. 사실 교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그 학생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아직은 그런 학생에게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봐야 해요. 청각장애학생이 친구 또는 교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도와줄 언어재활전문가나 특수교사가 항상 상주해서 그 학생이 문제없이 학급에 보다 잘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연구참여자 H).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했을 때, 일단 이해나 표현 시 발음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데 힘이 들었고 청각장애학생 본인도 학습을 포기하거나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해나 발음만 조금 더 좋아지면 청각장애학생 본인도 언어에 더 자신감이 향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각장애학생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많은 독서지도와 발음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에 일반교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해 좀 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언어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I).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의학적 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 C는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급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또래 청인학생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서만 가능하고, 학습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연구참여자 C는 청각장애학생의 다양한 어휘나 단어, 그리고 말의 의미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언어적 이해와 표현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서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로 의학적인 수술이나 치료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되도록 조기

에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청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적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재활 및 의료에서의 조기치료 및 중재라고 할 수 있다(박찬원, 2004; Antia et al., 2009). 사실 과거와 비교하여 청각장애학생의 조기 장애발견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빠른 처치와 재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책읽기, 발음 개선 등을 포함한 상세하고 자세한 언어지도를 시도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 E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개선 노력은 다른 어떤 면보다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청각장애학생이 몰라서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다가가 적극적인 태도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이현주, 2018). 그 이외에도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보청기에 문제가 없는지 소음이 심하지 않은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도록 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I를 통해서도 청각장애학생이 교재의 내용에 대한 이해 및 표현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발음도 좋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도출된다. 또한 독서나 발음 개선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활동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언어전문가나 특수교사의 지원은 학교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최상배, 2012).

셋째, 통합교육 환경 개선 및 전반적인 언어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H는 청각장애학생이 의사소통 능력이 또래 청인과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특수교사나 언어재활사가 학교에 상주하여 청각장애학생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일 때 일반학급 담당교사를 도와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통합교실을 배치하고(이현주, 2018), 소음이 적고 청각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기자재가 잘 갖추어질 수 있는 최적의 곳으로 사전에 협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교사를 지원할 관련 전문 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교사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과 그 내용을 함께 한다(전웅섭, 정은희, 2015).

2) 교사양성 체제 변화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연구참여자들은 지금의 교사양성 체제가 실제 현장에서 청

각장애학생을 담당하여 지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교사양성 체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가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때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다닌 교대에는 그런 특수교육 관련 과목이나 교육과정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특수교육개론 수준의 한 과목인가 배운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장애학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없지요. 학교에서 좀 더 특수교육 관련과목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연구참여자 A).

지금의 교사양성 과정을 보면 일단 청각장애학생 수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적은 편이고 그래서 더욱 더 교대나 사범대에서 장애관련 과목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의 양성체제는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양질의 일반 교사들이 양성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구조로는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늘리거나 1년 이상 특수교육 과목을 더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또한 교대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수나 전문가가 직접 가르치는 과목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9학점 정도로요. 이것을 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특수교육 관련 몇 과목만 듣고 현장에 투입되어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요(연구참여자 C).

저는 사실 특수교육에 대하여 잘 몰라요.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지만 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대 양성과정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즉, 특수교육 과목이 보다 많이 개설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필요한 것을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일반학급에는 점점 장애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이 늘고 있는데 교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요(연구참여자 G).

제가 다닌 교대를 생각해보면 특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교수나 강사들이 학교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교사들이 학교 졸업 후 다양한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교수들이 학교에 초빙되거나 교수로 와서 보다 질적인 통합교육이 학교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J).

교사양성 체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장을 고려한 특수교육 관련 필수 과목 개설 및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A는 현장에서 많은 장애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때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 고충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의 교사양성 체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교사양성 기관에서 예비교사들을 양성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야 할 특수교육 과목들을 적절히 이수하고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지식이 실제 현장에 잘 녹아들어 청각장애학생 지도 시 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최상배, 2012)는 것과 그 뜻을 같이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C는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제대로 된 교육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해 스스로 죄책감도 여러 번 느꼈다고 고백했다. 지금의 교사양성 체제가 아직도 큰 변화

가 없는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학교는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교사양성 기관이 이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둘째,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배치 및 교류를 통한 질적인 통합교육 보장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G는 오랜 교육경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면서 교사생활 시작 전 학교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이수했지만 현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청각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학생을 통합교육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지도 가능하도록 특수교육 전공 교수나 강사들이 일반교사 양성기관에서 강의하도록 하고 특수교사 양성기관도 그렇게 하여 서로 간의 전문적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교사양성 체제는 실제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으며 청각장애학생을 통합교육 환경에서 지도하는데 미흡하므로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과목의 개설 및 확대, 교사양성 기관 간의 통합, 교류, 다양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반교사들이 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 및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가진 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정미, 2018).

3) 청각장애자녀 수용 및 홀로서기 지원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청각장애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청각장애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청각장애학생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청각장애학생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현(가명)이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늦게 발견되었고 학령기 이후에야 진단받고 나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인공와우수술을 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신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데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상담을 해 보면 많이 예민하신 편인 것 같아요. 이에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이러한 장애가 있는 자녀의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연구참여자 A).

청각장애 부모를 만나보면 자기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에 많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시는 것 같고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보거나 뭔가 잘못될까봐 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냈는지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반교육을 받게 되어 만족을 하시는 편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 보이세요. 청각장애학생도 장애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이 독립해서 살아나가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네요(연구참여자 B).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urrent Inclusive Education for 147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먼저 청각장애학생 부모부터 청각장애학생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청각장애학생이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것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고 모든 것을 교사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에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청각장애학생 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H).

청각장애학생 부모들은 보통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혹시나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요. 일반학생 부모들이 같은 반 청각장애학생을 안 좋아하는 건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청각장애학생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J).

청각장애자녀 수용 및 홀로서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기의 장애 수용 및 독립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A는 청각장애학생 부모는 청각장애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알더라도 이러한 자녀의 장애 사실을 숨기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 시기와 필요한 수술 등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추후에 청각장애학생이 인공와우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결국은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수업하고 활동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장애 수용과 인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청각장애자녀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및 과잉보호, 불신을 줄이고 굳은 신뢰와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각장애학생 자신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가치관과 독립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청각장애학생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국가의 지원이 지금보다 많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상담 및 가족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B는 청각장애학생을 둔 부모는 자녀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혹시나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크며,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인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청각장애학생 및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며 통합교육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청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부모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 청각장애학생 및 가족, 관련 전문가, 기타 관계자들과의 밀접한 협력과 교류가 지금보다 요구된다(박성하, 2009). 연구참여자 H는 청각장애학생 부모는 비교적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청각장애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자녀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부모가 알아서 해 주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학업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일반학급 담당교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셋째, 자녀에 대한 열린 마음과 담당교사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J의 경우 청각장애학생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녀를 믿어 주고 혼자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교사 및 관련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보다 잘 통합되고 학급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이현주, 2018), 청각장애학생과 부모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 교육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국가의 질적이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확보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지금의 학교는 청각장애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 위험이나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학교에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일반교사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한다.

현재 청각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고 장애학생을 맡는다고 해도 특별한 지원이 있지도 않아요. 일반학급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각장애학생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각장애학생이나 장애학생이 매년 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의 교육환경에서는 수어를 하는 청각장애학생이 온다면 수업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루 빨리 특수교사나 언어재활사 등의 전문 인력이 안정되게 학교에 배치되어 함께 장애학생을 맡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국가는 양질의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학교에 전문 인력 배치를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연구참여자 C).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면 일반학급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진단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간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능력은 점차 천차만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는 교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지치고 힘이 들어요. 국가가 이를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지원할 전문 인력들을 많이 배치해서 청각장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H).

지금의 학교는 청각장애학생과 같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일반교사가 혼자 지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국가나 학교는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장애학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요. 또한 부장교사를 하면 수당을 주는데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책임감이 그에 못지않게 큰데도 처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담임을 안 하려고 해요. 이에 전문성이 있는 일반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특수교사나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해줘서 딱히 장애진단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학교에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문 인력 배치에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해요(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 안정적인 특수교육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장애학생을 담당한 일반교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참여자 C는 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해 국가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나 평가 기준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관련 연수나 교육에도 문제가 있으며 지금보다 교사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들이 장애학생의 담당을 기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할 일반교사를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의 강화와 지원을 해야 함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김선애, 최성규, 2009).

연구참여자 H는 장애진단을 받은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일반학급에 통합된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은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에 특수교육 전문 인력 배치 및 지원에서 찾았다. 지금 일반학급 교실은 교사 혼자 장애학생까지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과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J는 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을 비롯하여 일반학급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교육적 결과나 책임은 담당 교사에게만 돌리는 경향이 있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실제 장애학생을 담당한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만큼 큰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금 개선이나 교사 지원이 달라져야 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국가는 전문성이 있는 일반교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더불어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해서 이들이 일반교사와 협력하여 장애나 장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 배정된 학교에 가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통합교육 내실화가 여전히 필요하며(Polat, 2003), 그 이외에도 통합교실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 및 기자재 등의 확충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하얀, 202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통한 개선 과제를 알아보는 연구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 현상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는 경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하고 공통된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여 그 이면의 깊은 의미까지도 찾아가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각장애학생 지도의 한계를 경험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담임교사로서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참된 교사로서의 굳은 의지와 기대를 가지고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더 나은 교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개선 과제는 4가지로 유목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개선이 우선 시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였고, 의사소통 제한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교사 양성 체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자녀에 대한 수용 및 홀로 서기 지원, 국가의 질적이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사 전문 연수, 청각장애학생 사회성교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재정립,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적용 및 장애 이해 및 수용 환경 개선, 청각장애학생 가족 지원, 학교의 특수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경험을 통한 개선 과제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통합학급 내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평가 방법과 관련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문제와 수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통합교육 환경에서 수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향이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Antia, S. D., Jones, P. B., Reed, S. & Kreimeyer, K. H. (2009). Academic status and progress of deaf and hard-of-hearing students in general education classroom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4*, 293-311.
- Bemdsen, M. & Luckner, J. (2010). Supporting student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in general education classrooms: a Washington State case study. *Communication Disorders Quarterly, xx(x)*, 1-9.
- Choi, S. B. (2012). The qualitative research on reality and future direction of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4(3)*, 55-77.
[최상배 (2012).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교육 수화통역을 중심으로. **특수 아동교육연구**, 14(3), 55-77.]
- Cramer, E., Liston, A., Nevin, A. & Thousand, J. (2010). Co-teaching in urban secondary school districts to meet the needs of all teachers and learners: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re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Whole Schooling, 6(2)*, 59-76.
- Jeon, E. S & Jung, E. H. (2015). Survey on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parents, and teachers to inclusive education.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6(1)*, 167-190.
[전응섭, 정은희 (2015). 통합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6(1), 167-190.]
- Jung, E. Y. (2012). Development on fuzzy inference rule to determine the inclusive education placement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정은영 (2012).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배치 결정을 위한 퍼지 추론규칙 개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ayi, N., S' lungile, T. & Bonginkhosi, T. (2019). Experiences of teachers of deaf and hard-of-hearing students' in a special needs school: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ducation and Training Studies, 7(7)*, 79-89.
- Kim, H. Y. (2020). Meaning of disability experienced by D/deaf in the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김하얀 (2020).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인이 경험한 장애의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J. M. (2018). Concept map of integrated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of early childhood teacher and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 Focusing on public kindergartens.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김정미 (2018). 장애유아통합교육에 대한 개념도 비교 분석: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J. M & Lim, H. J & Kim, K. H. (2014).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6*(1), 321-338.
- [김정민, 임해주, 김경화 (2014).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경험 및 직무만족도에 따른 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321-338.]
- Kim, S. A & Choi, S. K (2009). The qualitative research for reality,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n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0*(4), 471-490.
- [김선애, 최성규 (2009).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471-490.]
- Kim, Y. C & Jung, S. W (2015). Documents analysis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1*(6), 253-285.
- [김영천, 정상원 (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 Kwon, S. H. (2010). Environmental study in education placement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1), 23-41.
- [권순황 (2010).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배치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 23-41.]
- Kwon, S. W (2010). Case study on hearing impaired teachers'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2*(4), 181-206.
- [권순우 (2010). 청각장애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에 대한 사례 연구. **언어치료연구, 22**(4), 181-206.]
- Lee, H. J (2018). A study o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general educa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on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이현주 (2018). 청각장애 초등학생을 담당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과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ee, S. Y & Kim, E. K (2008). Regular education teachers' stress and needs on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4), 207-231.
- [이수연, 김은경 (2008). 초등학교 통합학급교사의 통합교육 관련 스트레스와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10**(4), 207-231.]
- Lieberman, L. J., Dunn, J. M., van der Mars, H. & Mccubbin, J. A. (2000). Peer tutors' effects on activity levels of deaf students in inclusiv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7*(1), 20-39.
- Ministry of Education (2020). *2020's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0). **2020년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 Mock, D. R. & Kauffman, J. M. (2002). Full inclusion and the deaf student: A deaf consumer's review of the issue. *The Teacher Educator, 3*(3), 202-215.
- Moon, E. H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integrated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 [문은희 (2009).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

- Most, T., Ingber, S. & Heled-Ariam, E. (2011). Social competence, sense of loneliness, and speech intelligibility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in individual inclusion and group inclus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7, 259-272.
- Park, C. W (2004). Improving intergration education, between a special education school for the deaf and a general education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박찬원 (2004).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통합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C. Y (2012). The study on comparison between special and general class teachers' recognitions toward deaf cultur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박찬영 (2012). 농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와 원적학급 교사의 인식 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Park, S. H (2009).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n ability in the deaf and attitude toward inclusiv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Dea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박성하 (2009). 초등학교 교사의 청각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olat, F. (2003).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deaf stude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8(3), 325-339.
- Powers, S. (2002). From concepts to practice in deaf education: A united kingdom perspective on inclus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7(3), 230-243.
- Seo, J. H & Yoo, E. J (2014). Survey on the understandings of general classroom teacher about educating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supporting the teacher of a inclusive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2), 203-230.
[서중현, 유은정 (2014).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과 지원 실태 파악.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203-230.]

<국문 초록>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

박 미 혜 · 권 순 우

[목적]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바람직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통한 현재 통합교육의 개선 과제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방법]** 이를 위해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초등학교 교사 10명과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현상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다양한 현상 안에 내포된 깊은 의미까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각장애학생 지도의 한계를 경험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담임교사로서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의 한계를 인식하는 4가지 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더 나은 교사로 변화를 소망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개선 과제는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개선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였고,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결론]** 현재 교사양성 체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으며, 또한 청각장애자녀에 대한 수용 및 홀로 서기 지원, 국가의 질적이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각장애, 통합교육, 개별 심층면담

논문 접수(Received): 2020. 11. 09. / 심사 시작(Examined): 2020. 11.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0. 12. 14.